

# 구례군수, 너도나도 김순호 군수 대항마 자처

### 민주당 내 경선 승리 '관심'...치열한 경선 불보듯 섬진강 홍수 피해 배상·관광구례 완성 등 공약 다양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 구례군 선거는 김순호 구례군수를 포함한 5명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2명의 승부가 펼쳐진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재선을 자신하고 있지만, 당내 경선 항배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선거 때마다 출마했던 만만치 않은 후보들이 포진한 데다 무소속 후보들의 패기가 선거 판세를 좌지우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김순호(60) 군수와 박양배(54) 전 민주당 부대변인, 신동수(49) 구례새마을금고 이사장, 왕해전(59) 구례포럼 대표, 정현택(55) 전 구례군 서기관 등 5명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텃밭에서 당내 경선 승리는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적용되는 만큼 이들의 경선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순호 군수는 군정에 대한 해박함과 안정적 운영, 강력한 추진력이 강점이다. 섬진강과 지리산 등 자연을 활용한 관광도시 건설에 매진하면서 잘 사는 구례를 표방한 점이 주민들에게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관광객이 많이 다녀가면 지역 살림살이도 나아지고 또 새로운 관광자원을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내세워 섬진강 변 관광 자원화 등에 힘을 기울였다.

지난해 섬진강 대홍수 이후 군민을 살피고 정부 보상을 촉구하는 등 재년에 강한 모습도 군민들의 눈도장을 받았다.

박양배 전 민주당 부대변인은 선거 후유증이 심했던 구례의 갈등을 풀어나고 공정을 다시 세우고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각오다. 모두

가 하나인 구례, 관광 구례 명성재현으로 에코 관광도시 구현, 섬진강 수해의 빠른 피해배상 등을 내걸었다.

신동수 구례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구례군청년연합회장을 지내면서 구례 발전을 이끌어갈 마당밭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40대 새바람을 주창하면서 구례관광 확대와 설립 등 구례의 관광과 지역경제를 위한 정열에 혁신까지 가미한 지도력을 보일 계획이다.

왕해전 구례포럼 대표는 인지도 높은 인물로 평가받는다. 구례군 광의면 천변 마을에서 태어나 한국외대를 다니다 학생운동으로 제적된 후 야학과 노동운동 등을 펼치다 투옥되기도 했다. 수해 피해복구 등 구례의 현안을 책임질 지도자로 자평하고 있다.

정현택 전 서기관은 구례군청 사무관으로 재직하다 서기관으로 명퇴했다. 용방면과 간전면의 면장직 수행 등 농촌 성향 강한 구례에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이 가능했던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런 만큼 선거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무소속 후보들도 텃밭임을 주장하며 민주당 후보와 한판 대결에 자신감을 보인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승식(59) 구례군 의원은 재선 군의원으로 군의회 의장과 구례라이온스클럽 회장 등을 지냈다. 인맥과 지역 기반, 인지도가 남다르며 구례군을 살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책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이창호 전 전남도 의원은 농민이면서 군의원과 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쳤다. 농업의 소멸을 방지하고 농민 수당을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확대 지급토록 하는 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작지만 잘살고 웃음꽃 피는 강한 구례 건설이 목표다.

구례군수 출마 예정자(가나다순)



인구 2만 5000여 명으로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작은 지자체인 구례군에서 선거를 치르기는 만만치 않다. 후보군 난립과 과거 정치권의 입김 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선거도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군이 대거 선거판에 모여들면서 지역사회가 들쭉이고 있다.

김순호 군수가 무난히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할 것인지 후보들의 물밑 경쟁 속에서 군민들의 표심은 들끓고 있다.

구례=박진호 기자

# 고흥군수, 무소속 군수 vs 민주당 후보 '혈투 예고'

### 와신상담 제도전 공영민 vs 추진력 자신 박진권 텃밭 갈고닦은 송귀근, 노하우 쏟아내며 지지 호소

6·1 지방선거 전남 고흥군수 선거는 무소속의 송귀근 군수와 더불어민주당 경선 최종 통과한 단 한 명의 대항마가 예상된다.

무소속 송귀근(65) 군수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공영민(68·전 기재부 부이사관)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진권(50·전남도의원)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5명의 후보가 경선을 벌여 공영민, 박진권 등 두 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한 바 있다. 오는 4월경 당내 본 경선을 거쳐 1명의 후보가 정해지면 송 군수와 고흥의 미래를 놓고 격돌하게 된다.

역대 고흥군의 선거가 그랬듯이 이번 선거 또한 고흥 16개 읍면 515개 마을 주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혈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인 인구 비율이 전국 어느 곳보다 높고, 농어촌 지역이라는 점에서 후보들의 전략적 대응도 볼 만한 것으로 기대된다.

송귀근 군수는 지난 2014년 출마를 시작으로 때 묻지 않은 참신성을 부각시켰다. 고시 출신으로 40대 초반 고흥에서 부군수를 지낸 집과 송씨 문종의 지원, 현직이라는 점은 군 단위 선거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박병중 군수와 맞붙어 패한 송 군수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후보로 나서면서 인물론을 강조했었다. 당선 후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치면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위법 부당한 일은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자세를 견지했다.

임기 초 행정관료의 티를 벗지 못한 모습으로 군민과 접촉이 부자연스러웠거나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뒷말이 나오긴 했으나 개선 노력도 엿보였다.

송 군수는 무소속으로 나선 만큼 잘사는 고흥군, 인구가 늘어나는 고흥을 위해 쌓아 온 경륜과 노하우를 쏟아내며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상대 민주당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선거 전략을 바꿔야 하는 고민이 없진 않다.

공영민 전 기재부 부이사관은 민주당 경선 통과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뒤 송귀근 군수와 리턴매치를 준비하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시 제주 인구 증가에 일조한 자부심으로 지난 8년 간 고흥군에 살면서 농촌 발전, 인구 증가를 목표로 표방을 다졌다.

공 전 부이사관은 반드시 군수로 당선돼 고흥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고 싶다고 밝혔다. 선거로 편을 가르치지 않는 군민 통합의 최초 군수가 되고 싶다는 포부도 빼놓지 않았다. 고흥이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 벗어나 더 큰 고흥, 사람이 모여드는 고흥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인구정책을 펼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박진권 전남도 의원은 스스럼없는 인간관계와 강력한 추진력을 무기로 삼고 있다. 선·후배 등 대인관계만큼은 남들 못지않은 웅만만 인품이 강점으로 알려졌다.

고흥군수 출마에 나섰지만, 당장 당내 경선이 목전에 다가온 데다 선거 운동을 위한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에서 밀바닥 표심을 향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내 1차 경선에서 경험했던 선배들의 도움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선거는 누가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후보인지를 가리는 데 치중하고 인맥과 강력한 추진력, 그리고 선거 후 지역의 화합을 이끌 책임자임을 내세웠다. 시원시원하고 호탕한 성품을 고흥의 노인들에게도 인정받아 참신한 지도자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고흥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결과에 따라서 대결 구도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출신 전 군수와 군의원, 도의원 등 지역 정치판의 가세도 변수다.

'누가 고흥의 미래를 이끌 것인가'를 전제로 출사표를 던졌지만, 앞날을 예측기

고흥군수 출마 예정자(가나다순)



어려운 군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향한 후보들의 초조함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  |                              |   |
|--|------------------------------|---|
| <b>호남신문</b> www.i-honam.com  |                              | <b>대표전화 (062) 229-6000</b><br>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
| <b>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b>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                              |   |
| <b>동부취재본부</b>  | <b>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b>   | <b>(061) 905-2011</b>                             |
| <b>서울취재본부</b>  | <b>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b> | <b>(02) 2238-0003</b>                             |
| <b>기사제보 (062) 222-2580</b>   | <b>광고직통 (062) 228-2580</b>   | <b>팩스 (062) 222-5547</b>                          |
| <small>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small> |                              |   |
| <small>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small>   |                              |   |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